

## 5-1 주요내용

- ▶ 한국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비디움 재배농가의 수출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수출 시장을 개척해 12월 29일 첫 선적을 한다고 28일 밝 밝혔음
- ▶ 동남아 지역은 사원에 꽃을 바치고, 호텔·가정 등에 꽃으로 장식을 하는 등 꽃 수요가 많다.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고품질 양난인 심비디움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었음
- ▶ 이번에 수출하는 심비디움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황금색, 분홍색 등 15종이며 4,400본, 10만달러에 달함. 올해 처녀 수출 물량은 많지 않지만, 베트남 시장을 바탕으로 동남아 양난 시장을 개척한다면 한국의 양난 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
- ▶ 한국의 심비디움은 2008년 중국 시장에 약 230억 원을 수출 할 정도로 신선농산물 수출의 효자 품목이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정치·경제적 상황 변화로 수출이 둔화되고, 국내 소비도 줄면서 심비디움 재배 농가의 소득이 떨어져 재배 농가마저 크게 줄었음
- ▶ 이번 심비디움의 베트남 수출은 농촌진흥청 내 여러 부서와 농업인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음. 농진청 농산업경영과는 수출농가를 조직화하고 수출대상 나라를 방문해 선호 품종과 품질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, 화훼과는 2013년부터 개발한 '레드썬' 등 5품종을 포함해 총 8종, 7,500주를 수출농가와 시범재배하면서 품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지도로 국산품종 보급에 노력해 왔음
- ▶ 농수산부 수출농업지원과는 통관절차 등을 통합정보(One Stop Service)로 제공하면서, 수출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내 심비디움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, 농진청 농산업경영과는 향후 화훼재배농가, 수출업체 등과 협력해 심비디움 100만 볼 수출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 시장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목표로 사업추진중임